

한전, 나주시 '에너지밸리 MG' 구축... 삼성·LG 동참

신재생에너지원·ESS 활용
개방형 플랫폼으로 주도권 확보
스마트싱스·씽큐, DR 시범 사업

나주시가 미래 에너지와 신기술로 무장한 도시로 탈바꿈한다. 한국전력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도 동참한다.

한국전력은 9일 나주 본사에서 '에너지밸리 MG(마이크로 그리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신사업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했다.

에너지 밸리 MG는 나주시에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독립형 전력망을 구축,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전과 기관 및 기업이 모여 '에너지밸리 MG 사업'을 위해 친환경 전원 개발과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규제 프리존 구축 등에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기관과 기업들은 ▲친환경 전원(태양광, 풍력, 수소, 소형 원자력



(왼쪽부터)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민규 42dot 그룹장, 장권영 시너지 대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윤병태 나주시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이철환 빈센 대표, 한미숙 헤리트 대표, 강주엽 기아 상무, 박태홍 LG전자 실장. /한국전력

등) 개발 ▲전력데이터(AMI, 계통정보 등)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를 활용한 규제프리존 구축 ▲미래 신사업을 선도하는 개방형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풍력·SRF·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와 영산강 친환경 선박 도입, 탄소배출권 P2P거래, 커뮤니티 솔라, 분산자원·수요자원 통합관리 사업 등 에너지밸리 MG내에서 신기술 검증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를 구축

하는 에너지밸리 MG 사업의 의의도 다시 살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에너지밸리 MG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성하여, 국내 에너지 신사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MG 사업분야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협력과 융합에 기반한 국가적 비용 절감과 전력 소비자의 편의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진행되는 DR(주민주요 반응) 시

범 사업에 참여하며 MG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DR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아파트 약 2000세대를 대상으로 DR 서비스 시범 도입을 추진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파트너로 낙점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활용한 절약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가전을 연결하면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여주는

플랫폼으로, 에너지 절약 미션 시간에 스스로 AI 절약 모드를 작동하거나 조명 혹은 스마트 플러그 사용 전력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박찬우 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시 주민 DR 사업에 이어 나주시로 사업 협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편리하게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씽큐 앱으로 동참한다. 씽큐 역시 LG전자 스마트홈 플랫폼으로, 가전제품을 연동하면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는 등 에너지를 아껴준다. 또 '우리집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시해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요금, 누진제 구간 사전 알림 등을 안내하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장 정기현 부사장은 "LG전자는 LG 씽큐 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정황근, 동남아서 'K-푸드 영업사원' 활동

(농식품부장관)

말레이시아 최초 농업장관 공동선언
인니에 스마트팜 등 韓 진출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과의 미래지향적 농업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모하마드 사부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최초의 농업장관 공동선언을 하고 식량안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할랄식품 교류 등 농식품 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또 할랄 한우 제

1호 수출계약 체결, 말레이시아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KMT)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 업무협약 체결 등 '케이-푸드(K-Food) 수출 영업사원'으로서의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물야신 립포 농업장관을 만나 양국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등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팜유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농식품 기업들과 현지 진출 법인들을 만나 구체적인 정책 지원 수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지역의 중추국가이며, 특히 올해는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이자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정 장관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목재, 팜유 등 중요 원자재 수출국으로서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고, 한류의 인기와 함께 한우, 과일, 김치 등 우리 농식품 수출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나라와 농업협력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케이-푸드(K-Food)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산물 수출 확대에 본격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농협중앙회, 농가 냉해 피해복구 전력

작물 축진 영양제 20만개 무상 공급
지역농협, 무이자 1000억 규모 지원

농협중앙회가 최근 냉해 피해 농업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실시한다.

농협중앙회는 작물생육축진 영양제 20만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지역농협을 통한 무이자 자금을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농업인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 4월 8일부터 9일 발생한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개화기에 접어든 전국 과수 농가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8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냉해 피해는

총 9628ha로 이 가운데 95%가 과수류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냉해로 경북, 전남, 전북, 경기, 충북지역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며 품목별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인들의 냉해피해가 커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농협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농가 피해 최소화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성희 회장은 지난 4월 28일 전북 장수와 충북 보은 농가를 찾아 냉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의 의견 청취 등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국해운協-4개 선사, KP&I 가입 확대 맞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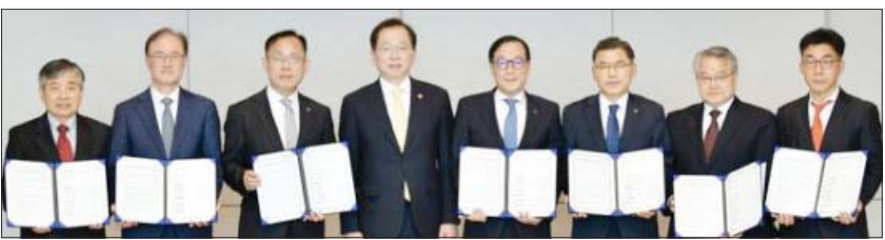
(한국선주상보험조합)

포스코플로우 등 상생협력 체결
韓 가입 선박 14척... 불과 11%

한국해운협회는 포스코플로우, 한국선주상보험조합 및 포스코 CVC 운송선사 4개사 대표이사와 9일 포스코센터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재 국내기업 CVC선 115척중 한국선주상보험조합(KP&I)가입 선박은 14척으로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포스코 CVC선대의 KP&I 가입 확대를 통해 KP&I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협약서에는 ▲해상운송 경쟁력 강화



(왼쪽부터) 박영안 KP&I 회장, 안중호 팬오션 사장, 김만태 대한해운 사장,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노용래 플라리스쉬핑 부사장. /한국해운협회

를 위한 협업체 구성 ▲포스코그룹 수출입 해상수송물량의 국적선 수출 확대 ▲최상의 해상수송 및 보험서비스 제공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및 선주상보험조합법 준수 및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 합리적인 입찰 계약 및 보험서비스 제공 등의 협력사항이 담겼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해상운송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운업계와 포스코플로우, 한국선주상보험조합의 상생협약에 환영의사를 표하면서, 이번 협약이 해상운송 전반에서 국적 해운선사와 포스코그룹, 한국선주상보험조합 간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농진청 '치유농장'서 팜스테이 즐겨요

농업 활동 자체 소비에 초점

"한번도 안 온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죠?"

농촌진흥청 박진우 농업연구관은 '치유농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9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드림들 힐링팜'. 농진청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치유농장'으로 생태·숲 체험과 팜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 농장은 9900㎡(약 3000평) 규모로 원등산 자락에 위치해 이름모를 들꽃이 여겨저기 피어있다. 누군가 계란후라이꽃이라며 '샤스타데이'를 가리킨다.

농업이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 자체를 소비하는데 초점을 둔다.

박 연구관은 "치유농업은 국민 건강 회복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그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이다. 치유농업을 확산하는 거점기관도 구축되고 있고, 관련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도 253명 배출됐다. 농진청이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난해까지 누적 8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